

서울 여성기업 성장률 전국 최하위

“여성창업기업, 3년뒤 2곳 중 1곳 폐업”

서울연구원 여성기업 사업체 조사 10곳 중 8곳 정책지원 경험 전무 까다로운 신청조건·정책정보 부족

저출산·고령화상황속에서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미비해 여성기업의 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여성기업을 위한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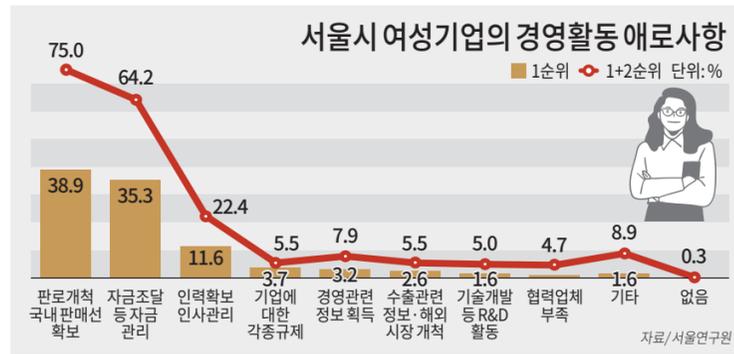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8년 서울시 여성기업 성장률은 연평균 1.9%로 전국 2.8%에 비해 0.9% 포인트 적었다. 지난 9년간 여성기업의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서울(1.9%)은 부산(1.3%)에 이어 가장 낮았다.

전국의 여성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120만3828개에서 2018년 150만2731개로 24.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23만443개에서 26만8069개로 16.3%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시 여성기업의 전국 내 비중은 2010년 19.1%에서 2018년 17.8%로 1.3%포인트 쪼그라들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지원 부족으로 관내 여성기업은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절반 넘게 사라졌다. 여성기업의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47.4%였다. 서울에서 여성기업 100개가 창업하면 3년 뒤 53개가 폐업하고 47개만 살아남는다는 의미다.

서울 소재 여성기업의 생존율은 남



성기업보다 낮았다. 창업 후 1년간은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생존율 격차는 0.3%포인트로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돼 창업 후 6년이 됐을 때는 5.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서울시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국내 판매선 확보였다. 서울연구원이 관내 여성기업 380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종합 순위(1+2 순위) 기준으로 '판로개척'(75%)이 가장 큰 걸림돌로 파악됐다. 자금조달(64.2%), 인력확보(22.4%), 경영 관련 정보 획득(7.9%)이 뒤를 이었다.

관내 여성기업 10곳 중 8곳은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8.4%는 '신용보증·자금 지원' 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80.5%는 '고용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여성기업들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 정책 정보 부족'(23.2%), '지원 및 시행기관에 대한 접근 어려움'(17.9%), '지원 내용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8.7%) 순이었다.

관내 여성기업들은 서울시내 '경영안정 자금지원'(38.4%),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21.8%),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지원'(15.5%),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7.1%), '경영정보 지속 제공'(5.3%), '공공구매 확대'(3.9%), '여성경제인 창업 지원'(3.4%), '여성경제인 교류 확대 및 네트워킹 지원'(2.4%)을 요구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는 여성기업의 창업과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구매 확대, 창업 지원 같은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여성 제조기업을 위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구축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고양시, 중장기 교통체계 개선 대책 마련

광역교통망 확대에 맞춰 효율화

고양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을), 홍정민(병), 이용우(정) 국회의원과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2월 15일(월) 킨텍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양지역의 중장기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당정협의회는 급격하게 확장하는 도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철도망 및 도로망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적이고 선제적인 교통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고양시는 GTX-A,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대곡

-소사선 연장, 지하철3호선 연장(가좌, 덕이 포함), 경의선 증량증편 등 광역교통망 확대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양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양선 신설과 식사·풍동 트램신설 사업이 발표됐다.

이러한 광역교통망 확대에 맞춰 지역교통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는 등 광역-지역 연계 교통망 효율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및 도로망 계획에 연계한 지역 교통망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등에 맞춰 도로건설, 정비계획 등 지역 교통망 구축 계획과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 내 5등급 차량 통행량 24% 감소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시행 1년 만에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4분의 1로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운행제한을 시작한 2019년 12월 1만222대에서 지난해 12월 7823대로 23.5% 감소했다.

전체 통행량은 2019년 12월 일평균 77만6919대에서 지난해 12월 67만19대로 13.8% 줄었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미부착차량은 일평균 1760대에

서 724대로 58.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17만 158대에서 167만6819대로 22.8% 줄었고,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총 20만1321대에서 16만1864대로 19.6% 감소했다.

현재 시는 운행제한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등급제 기반의 탄력적 교통수요 관리 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전 자치구에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시 자금지원·상담·교육 등 전담 5월부터 '상권혁신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만든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은 자치구 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부터 경영상담, 교육, 컨설팅을 전담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정리 및 재기도 지원한다.

그동안 관내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과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지점)과 자영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플

랫폼은 지역 내 소비 트렌드와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시는 5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외식업(디저트 포함) 위주로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들은 실무중심의 교육, 멘토 사업장 체험, 모의창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내달 중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자세한 사업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중고생에 북페이 도서교환권 지급

1인당 1만 5000원 상당

고양시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네 책방에서 책 한 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친구와 함께 동네 책방에 들러 이책저책 고르는 재미는 덩이다.

고양시가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만 5000원 상당의 '고양 북페이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친구가 책방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서교환권은 고양시가 지정된 지역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동네 책방에 방문, 참고

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직접 고르며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도서구입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서점이 주관하는 강연프로그램, 북콘서트,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해 독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고등학생 약 5만 7000여명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관내 42개 중학교와 3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를 접수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서울시 만 39세 상향조정

서울시는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 서비스' 사업의 이용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대상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의 아이템을 한 번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정장 대여업체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7곳(신촌·사당·건대·왕십리·강남·논현·이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거주 청년(고교졸업 예정자~만 39세 이하)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지에서 원하는 정장 대여업체를 선택해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해당 지점을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치수 측정 등을 위해 대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 택배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대여기간 내 추가 면접이 있는 청년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대여연장 신청도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7일 (수) 음력 : 1월 6일

수도권 날씨: -10 ~ -4°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2/-4, 동두천 -12/-4, 가평 -13/-4, 파주 -12/-4, 서울 -10/-4, 양평 -11/-3, 인천 -9/-4, 수원 -9/-4, 용인 -9/-4, 평택 -10/-3, 백령도 -8/-5

해돋이 / 07:19 | 해질 / 18: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